



“프리킥 골 내가 먼저”

남아공 월드컵 D-2

‘박주영(모나코)의 오른발이나, 염기훈(수원)의 왼발이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나설 한국 축구대표팀에는 세 명의 프리킥 전담 키커가 있다.

오른발 킥을 담당하는 박주영과 기성용(셀틱), 그리고 왼발을 쓰는 염기훈이다. 이 중 기성용은 박주영보다는 먼 거리에서 프리킥할 때 키커로 나선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8일 밤(한국시간) 남아공 루스텐버그 올림피아드 경기장에서 1시간10분가량 전술훈련을 했다. 남아공 도착 후 체력훈련을 이어오다 처음으로 전술훈련을 위해 시간을 냈다.

공격진과 수비진으로 나뉘어 약속된 플레이를 가다듬는다. 베스트11로 팀을 꾸려 진행한 전술훈련 중 눈에 띈 것은 박주영과 염기훈의 프리킥이었다.

박주영과 염기훈은 페널티 박스에서 살짝 벗어난 아크 좌·우측에 공을 놓고 차례로 프리킥을 날렸다.

아크 왼쪽에서 날린 박주영의 오른발 프리킥은 옆 그물을 때리기도 했고, 수비벽을 피해 잘 감아 찬 공은 골키퍼 정상봉



〈박주영〉



〈염기훈〉

‘프리킥 달인’ 박주영·염기훈

왼쪽·오른쪽 위치 따라 출격

중거리 땀 기성용이 키커로

(성남)이 몸을 던져 쳐내기도 했다. 같은 자리에서 찬 염기훈의 프리킥은 덜 감겨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아크 오른쪽으로 공을 옮기고 나서 날린 박주영의 무회전 프리킥은 수비벽을 뚫고 날아가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이어 염기훈의 왼발 프리킥은 다시 옆 그물을 출렁였다.

박주영은 A매치 41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넣었다. 이 중 프리킥으로 상대 골문을 연 것은 두 차례다.

K-리그 무대에서 왼발의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염기훈은 A매치에서 넣은 3골 중 하나를 프리킥으로 해결했다.

남아공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박주영이 키이 날카로움을 더해가고 있지만 염기훈은 아직 제 감각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염기훈은 남아공 월드컵 공식 경기구인 자블라니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하지만 염기훈의 왼발 킥은 허정무호의 주요 공격 옵션 중 하나다. 프리킥은 위치에 따라 오른발로 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왼발로 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맨한 프리킥 때에는 박주영과 염기훈이 나란히 공 앞에 선다. 상대는 공을 누가 찰지 모른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박주영의 오른발과 염기훈의 왼발 프리킥 중 어느 것이 먼저 터질지도 지켜볼 만하다. /연합뉴스

한국의 ‘인간탄환’ 임희남·김국영 “이번엔 28년만에 쏘 게임 메달 도전”

기록 꾸준한 상승세 메달권 총본

상승세를 탄 한국의 인간탄환들이 11월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28년 만에 메달권 진입에 도전한다.

31년 만에 남자 육상 100m 기록을 갈아치운 김국영(19·안양시청)과 대표팀의 만능 임희남(26·광주시청)이 아시안게임 100m에 출전할 대표로 사실상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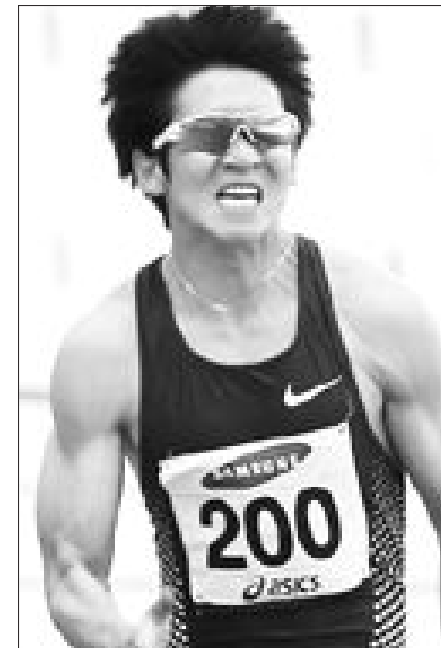
김국영과 임희남은 7일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각각 10초23, 10초32로 개인 최고기록을 갈아치워 실력에서 경쟁자를 물리쳤다.

예선과 준결승에서 각각 10초31과 10초23을 겨루 썩어 ‘10초34’의 벽을 허문 김국영은 최고 기록을 낸 선수여서 당연히 1순위로 뽑혔고 이날 결승전과 지난달 전국종합대회에서 각각 10초34, 10초42를 기록하고 우승한 임희남이 차점자로 뽑혔다.

한국 최고기록이 아시아 최고기록(9초99)과도 0.24초 차가 나고 일본 최고기록(10초00)에도 못 미친 형편이나 현재 김국영과 임희남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아시안게임이 기록보다는 순위 경쟁이라는 점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연합뉴스



〈임희남〉



〈김국영〉

김국영이 찍은 10초23은 올해 세계 여러 곳에서 작성된 100m 기록 중 48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시안게임만 따지면 10초16을 기록한 에리구치 마사시(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좋다.

장재근 대한육상경기연맹 트랙 기술위원장은 8일 “김국영이 아시안게임 전까지 꾸준히 10초2대만 찍어준다면 메달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한국 육상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100m에서 장재근이 위원이자 10초72를 찍어 은메달을 따낸 이후 6개 대회에서 메달권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국영과 임희남, 여호수아(23·인천시청), 전덕형(26·경향대) 4총사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룬 단거리의 르네상스를 연 올해는 메달 명맥을 이을 좋은 찬스를 잡았다. /연합뉴스

“월드컵 성적은 FIFA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랭킹 1위 국가 우승한 적 없어

‘월드컵 성적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순이 아니잖아요’ FIFA가 매달 정하는 국가별 순위가 월드컵 축구대회 성적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한국시간) 인터넛판에 보도했다.

FIFA가 나라별 순위를 매긴 것은 1992년부터였다. 이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2년 한국과 일본, 2006년 독일 대회까지 네 차례 월드컵이 열렸으나 대회가 시작될 때 세계 1

위였던 나라가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994년에는 당시 3위였던 브라질, 1998년에는 프랑스(당시 18위)가 우승했고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정상에 올랐던 브라질의 당시 순위는 2위였다. 4년 전 독일에서는 13위였던 이탈리아가 우승컵을 품어 안았다. 1위였던 나라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은 1998년 프랑스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브라질이었다. /연합뉴스

월드컵 이모저모

‘범죄예방 5계명’ 선포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참가한 축구대표팀을 전담 취재하는 한국 기자들에게 범죄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한국시간) 선수단의 베이캠프인 남아공 루스텐버그에서 취재 중인 한국 기자단 80여명에게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권고사항을 이메일로 배포했다.

이동국 그리스전 출전 가능

부상에서 돌아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을 준비 중인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동국(31·전북)이 빠르게 제 컨디션을 회복해 가고 있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지난 7일 밤(이하 한국시간) 남아공 루스텐버그 올림피아드 경기장에서 진행된 팀 훈련에 앞서 “이동국이 많이 올라왔다. 1998년 본선 첫 경기 출전도 조금은 가능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동국은 이날 전술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연합뉴스

‘스나이퍼’ 장성호 한화 유니폼 입었다

KIA-한화, 3:3 트레이드 합의

‘스나이퍼’ 장성호가 한화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KIA 타이거즈는 8일 외야수 장성호(33·사진)·김경연(28), 투수 이동현(31)과 한화 이글스 투수 안영명(26)·박성호(24), 외야수 김다원(25)과의 3:3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후 자유계약(FA)을 선언했던 장성호는 거취 문제를 놓고 구단과 갈등을 빚어오며 KIA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장성호의 요청으로 수면위로 올라왔던 트레이드는 결국 한화와 3:3 트레이드로 마무리 됐다.

불편진의 부진으로 어려운 행보를 해오고 있는 KIA는 공격적인 피칭의 안영명을 통해 허리 강화 효과를 노리게 됐다. 이번엔 새로 KIA에 등장을 뜬 안영명(우투우타)은 천안북일고 출신으로 183



cm·85kg. 공격적인 피칭과 다양한 구질로 지난해 11승 8패를 거두며 한화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했다. 올 시즌에는 선발과 중계수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2009년 신인 박성호(우투우타)는 부상고쳐 고쳐 고쳐대를 졸업했으며, 197cm의 큰 키에서 버리는 강속구가 위력적이다.

외야 백업요원으로 영입한 김다원(우투우타)은 광주출신으로 동성고와 단국대를 졸업했다. 185cm·83kg의 체격을 보유했으며 과외와 빠른 발을 겸비하고 있다.

한편 안영명과 김다원은 트레이드가 단행된 8일 곧바로 1군 엔트리에 합류했다. /김여기자 wool@kwangju.co.kr

‘태극 자매’ 3년연속 우승 도전

10일 스테이트팜 클래식 개막

2008년 오지영(22·마벨러스), 2009년 김인경(22·하나금융), 2010년 우승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군단이 10일(이하 한국시간) 밤 개막하는 스테이트팜 클래식에서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군단은 KIA클래식에서 초청선수로 출전한 서희경(24·하이트)이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맏언니 박세리(33)가 벨마이크로 클래식에서, 유선영(24)이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각각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3승을 합작했다.

스테이트팜 클래식은 2007년부터 팬더크리크 골프장으로 대회장소를 옮겼지만 유난히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던 대회이기도 하다.

1999년 김미현(33·KT)의 우승 이후 오지영을 비롯해 박세리·한희원(32·힐라코리아)·이지영(25)이 리더보드 상단을 점령, 한국 선수구리 우승 경쟁을 펼쳤다. /연합뉴스

대인동심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증, 대인동 소방서지번)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시포-거포-상-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빌드업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화.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동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들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태양광부지 구합

나대지.
- 서구 병촌동 호남대 건립부지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3.3㎡당 18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식당. 전원주택.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용역료. 조양양호.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 광산구 선암동 보훈병원 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농장. 주말주택.
- 나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 나주 왕곡면소재지 부근 7,410㎡ 3.3㎡당 35,000원. 계획관리지역.
- 나주 병행면 각동리 4,093㎡ 3.3㎡당 48,000원. 계획. 생산관리지역.
- 영암 군서 양정리 19,098㎡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 영암 덕진 영로리 14,414㎡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식당. 사무.
- 서구 마북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400.2㎡. 매매가 11억.
- 서구 농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매가 11억.

전원주택.
- 북구 화양동 대지 433㎡. 전면 1,994㎡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 8000만원. 조양 관광양호.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P.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면적/평	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마포동	118/36	192년	88년	362년	
	주심동	158/48	192년	88년	362년	
동구	신리	109/33	192년	88년	362년	
	문성동	172/52	291년	192년	362년	
북구	한곡(가림)동	171/51	392년	192년	362년	
	신수동	161/48	291년	192년	362년	
서구	회동	175/53	292년	292년	362년	
	금호(계곡)동	175/58	192년	68년	362년	
남구	미곡동	109/33	192년	68년	362년	
	문성동	109/33	9년	68년	362년	
북구	문성동	109/33	9년	68년	362년	
	문성동	205/62	194년	92년	362년	
서구	신리	161/48	192년	68년	362년	
	문성동	158/48	192년	68년	362년	
북구	문성동	190/60	492년	392년	362년	
	문성동	109/33	88년	68년	362년	
남구	문성동	224/68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05/32	192년	88년	362년	
서구	문성동	145/44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09/33	192년	1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105/32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45/44	192년	192년	362년	
남구	문성동	109/33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05/32	192년	1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145/44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09/33	192년	192년	362년	
남구	문성동	105/32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45/44	192년	1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109/33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05/32	192년	192년	362년	
남구	문성동	145/44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09/33	192년	1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105/32	1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145/44	192년	192년	362년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문성동	217/449	2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832/1174	189년	129년	362년	
북구	문성동	205/325	392년	292년	362년	
	문성동	239/900	692년	292년	562년	
남구	문성동	4440/1011	1092년	792년	482년	
	문성동	284/926	792년	482년	362년	
북구	문성동	317/1220	17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281/1112	1692년	892년	362년	
남구	문성동	237/1026	1092년	892년	362년	
	문성동	155/515	392년	2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338/208	1392년	992년	362년	
	문성동	134/112	392년	292년	362년	
서구	문성동	504/1700	1292년	792년	362년	
	문성동	153/188	292년	192년	362년	
남구	문성동	394/678	592년	292년	362년	
	문성동	542/645	1192년	6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787/820	992년	592년	362년	
	문성동	555/2269	2792년	192년	362년	

▶주택/빌라/다세대/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면적/평	건물	최저가	
광산구	문성동	554/1011	992년	692년	362년
	문성동	2966/373	992년	692년	362년
남구	문성동	1492/997	22년	154년	362년
	문성동	284/926	792년	482년	362년
북구	문성동	317/1220	17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281/1112	1692년	892년	362년
남구	문성동	237/1026	1092년	892년	362년
	문성동	155/515	392년	2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338/208	1392년	992년	362년
	문성동	134/112	392년	292년	362년
서구	문성동	504/1700	1292년	792년	362년
	문성동	153/188	292년	192년	362년
남구	문성동	394/678	592년	292년	362년
	문성동	542/645	1192년	6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787/820	992년	592년	362년
	문성동	555/2269	2792년	192년	362년

▶토지(전/답/염/매/대지)

지역	소재지	면적/평	건물	최저가	
광산구	문성동	2168/656	792년	58년	362년
	문성동	851/196	88년	58년	362년
동구	문성동	6790/2054	1392년	992년	362년
	문성동	11900/3600	392년	362년	362년
남구	문성동	287/86	492년	362년	362년
	문성동	5000/1512	58년	362년	362년
북구	문성동	5010/1515	192년	68년	362년
	문성동	12297/3719	292년	362년	362년
남구	문성동	22116/6690	192년	88년	362년
	문성동	105/24/3100	58년	48년	362년
광산구	문성동	843/255	18년	48년	362년
	문성동	3645/1190	482년	362년	362년
남구	문성동	751/227	282년	182년	362년
	문성동	1093/330	182년	362년	362년
북구	문성동	69840/21126	892년	482년	362년
	문성동	19200/5808	292년	192년	362년
광산구	문성동	9300/2813	392년	282년	362년
	문성동	9223/2789	192년	1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470/142	192년	782년	362년
	문성동	15789/4770	182년	182년	362년
남구	문성동	39834/11989	992년	292년	362년
	문성동	18775/5679	192년	192년	362년
북구	문성동	39967/12090	392년	192년	362년
	문성동	4011/1213	392년	292년	362년